

# 광주여대 안산, 혼성·단체전 2관왕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안산과 김우진은 25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 결승에서 러시아의 옐레나 오시포바-갈산 바자르자포프 조를 6-0(38-36 39-36 37-33)으로 완파했다.

앞서 결승이 열린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한 한국은 혼성전 결승에서도 이겨 이 대회 단체전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싹쓸이했다.

한국은 세계선수권에서 혼성전이 도입된 2011년 대회 이후 이번까지 6개 대회의 혼성전 금메달을 다 가져왔다.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은 개인전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약 2달 전 일본 도쿄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던 안산은 2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3관왕에 등극할 기회를 잡았다.

만약 안산과 김우진이 개인전 금메달까지 모두 가져온다면, 한국 양궁은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리커브 전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다.

앞서 1997년 빅토리아(캐나다) 대회와 2005년 마드리드(스페인) 대회, 2009년 대회에서 한국 양궁은 총 3차례 전종목 석권을 해낸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양궁 평준화가 가속화한 2010년 대부터 '최강' 한국 양궁에도 세계선수권 전종목 석권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특히 2019년 스페르토벤보스 대회에서 혼성전 금메달 1개에 그쳤던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안산과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5-3(53-54 55-54 55-53 56-56)으로 제압했다.

## 한국양궁, 세계양궁선수권 12년 만의 전 종목 석권 도전



안산 장민희의 강재영  
안산 김우진



안산 김우진

## 김우진과 팀 이뤄 혼성단체전 대회 6연패 합작 개인전서 2개 메이저 대회 연속 3관왕 정조준

한국 여자 양궁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김우진과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대학교)이 미국을 6-0(54-53 56-55 57-54)으로 완파했다.

남자 양궁이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5년 코펜하겐(덴마크) 대회 이후 6년 만

이다. 개인전에서 16강 탈락해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한 오진혁은 개인 통산 5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거머쥐며 아쉬움을 달렸다.

개인전 금메달 주인공은 26일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러 가린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안산과 장민희가, 남자에서는 김우진과 김제덕이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대상자 78명 전환 기준·평가의결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첫발'

광주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체육회는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정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내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계약 체결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구 등 5개 자치구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한 변호사, 노무사 등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78명 전환에 대한 전환 기준 및 평가를 의결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0일 중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토대로 최종 전환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도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 영암 출신 유해란, 시즌 첫승

### '엘크루-TV조선', 2차 연장 접전 끝 최혜진 제압 '통산 3승'

영암 출신 유해란(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엘크루-TV조선 프로 쉐러브리티 우승을 차지했다.

유해란은 26일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최혜진(22)과 함께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 상금 1억8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유해란은 2019년과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연속 우승했고, 이번에 투어 3승째를 따냈다.

2020년 투어 신인상 출신인 그는 최근 3년 연속 1승씩 기록하는 꾸준한 모습을 이어갔다.

1타 차로 앞선 가운데 먼저 경기를 끝낸 유해란은 뒤 조에서 경이한 최혜진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약 2m 버디 퍼트를 넣어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들은 첫 홀 버디로 비겼고, 두 번째 홀에서는 유해란이 버디로 경기를 끝냈다.

2차 연장에서 두 선수 모두 그린 주위 러프에 공이 놓였으나 최혜진 쪽 자리의 러프가 훨씬 길었다.

유해란은 세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낸 반면 최혜진의 칩샷은 홀을 훌쩍 지나쳐 약 2m 남짓까지 굴러갔다.

최혜진의 버디 퍼트는 왼쪽으로 살짝



유해란이 26일 열린 '엘크루-TV조선 프로 쉐러브리티'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KLPGA 제공>

빗나갔고, 이후 유해란이 팀인 버디에 성공하며 연장 승부는 유해란의 승리로 끝났다.

유해란은 경기가 끝난 후 "최근 퍼트가 잘 안 됐는데 이번 대회에서 올해 중장거리 퍼트가 가장 많이 들어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성적이 안 좋아서 저에 대한 의구심이 컸는데 이번 우승으로 그래도 제가 아직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핸드볼 선수권 5연패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5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26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33-24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5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아선수권에서 5회 연속 우승한 것은 1987년 1회 대회부터 2000년 8연패를 달성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18차례 아시아선수권 가운데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010년 아시아선수권 22-22 무승부 이후 일본과 16차례 만나 16번 모두 이겼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정상에 올라 올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이 대회 상위 5개 나라가 올해 세계선수권에 나간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 세계선수권에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 "코로나 극복 힘 모아요" '임새주 그녀' 송가인, 챔스필드 핏승 시구...KIA도 2연승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가수 송가인이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사인을 한 볼로 시구한 뒤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KIA는 이날 선발투수 명민의 호투와 5회말 김대진의 만루포를 앞세워 6대0으로 앞서가다 6회초 SSG에 대거 5점을 내주며 흔들렸다. 하지만 장현식과 정해영의 철벽 계투로 1점차 승리를 지켜내며 2연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위기의 광주FC '엷친 데 덮친 격'

### 32R 선두 울산에 0대1 석패...30R 제주戰 '무승부가 몰수패'로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 올산현대를 상대로 투혼을 발휘했지만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광주는 지난 25일 열린 울산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한 광주는 8승 5무 17패 승점 29점에 머물며 12위 강원FC에 2점차 앞선 11위에 자리했다.

팽팽한 승부를 펼치던 전반 30분 울산이 라인을 울리자 광주가 허를 찔렀다.

엄원상이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빠르게 측면을 파고들었지만 울산 수비

수 임종은의 태클을 못 피하며 기회가 무산됐다.

광주는 전반 35분 실점 위기를 맞이했다. 수비수 김봉진이 페널티 지역에서 울산 공격수 이동준을 넘어트렸다. 주심이 VAR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윤평국이 키커로 나선 이동준의 오른발 슈팅을 다리로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광주는 후반전 반전을 노렸지만, 후반 4분 이동준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며 끌려다녔다.

일격을 당한 광주는 후반 11분 엄원상이 상대 박스 대각 안에서 강력한 오

른발 슈팅으로 득점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1분 뒤 이찬동과 헤이스를 투입해 승부를 던졌다.

이어 후반 23분 이희균과 두현석 카드를 꺼내 총 공세에 나섰다. 울산 수비를 뚫지 못하며 0-1 패배로 경기를 마쳤다.

한편, 광주는 지난 30라운드 제주와의 경기(1대1 무승부)가 몰수패(0대3)로 처리되면서 승점 1점을 잃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 30라운드 경

기의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경기는 전반 9분 광주 김주공의 선제골, 후반 45분 제주 주민규의 페널티킥 동점 골로 1-1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광주가 한 경기에 허용된 선수 교체 횟수인 3회를 초과해 4차례에 걸쳐 선수를 교체했다는 주장이 이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제주의 이의 제기로 프로축구연맹은 감독관과 심판진이 제출한 보고서, 비디오 판독(VAR) 녹화 영상, 심판진의 경기 중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 광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다. 상벌위원회가 광주 구단에 대한 청문 절차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연맹은 후반 추가시간 광주 김봉진의 교체에 허용 횟수를 초과한 게 맞으며, 김봉진은 그 시점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무자격 선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희중 기자

## 한국스포츠산업마케팅 권위자

### 전호문 목포대 교수 별세



한국 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광주·전남 체육 발전에 앞장서온 전호문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57세.

전호문 교수는 서석고 시절 세계 청소년검도대회 개인전 3위를 차지한 엘리트 검도선수 출신으로 목포대 체육학과를 거쳐 미국 미시시피주립대에서 스포츠산업마케팅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올해까지 29년간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목포대에 재직하는 동안 27명의 박사를 배출, 후학 양성을 통한 지역스포츠산업의 학문과 현장 지평을 넓히는데 공헌했다.

대한체육회 전략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평가위원·한국 스포츠의교포럼 사무총장·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한 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인프라 확장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스포츠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전남도 체육회, 대한검도회, 대한견기협회, 전남카바디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체육계에 한 획을 그었다. 고인은 무안군 천국의 계단 추모관에 안치됐다. /박희중 기자